

# 광주·전남 농민들, 빛 값으려 판 땅 404억 더 주고 되셨다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광주·전남 6년간 환매차액 404억 넘어 올 8월 말 기준 전남 61억1400만원 차익·21% 비율... 전국 최고 위기농가 재기지원 뒷전... 4%대 환매 이자율 시중 금리보다 낮춰야

올해 광주·전남 농민들이 한국농어촌공사에 판 농지를 원래 값보다 61억원 넘게 더 주고 되셨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농업정책자금보다 환매 이자율이 높고 농지 가격이 오르면서 농민들이 환매 자금을 마련하는데 부담이 커지고 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 동안(2017~2022년 8월 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을 통해 공사가 광주·전남에서 거둔 환매차액은 404억32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8월 말 기준 지역 농지 환매차액은 광주 4400만원·전남 61억1400만원 등 61억5800만원이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재해 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4000만원 이상 부채를 지닌 경영 위기 농가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하고,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농어촌공사는 같은 기간 지역 농민으로부터 2432억5000만원 상당(광주 34억9600만원·전남 2397억9000만원) 농지를 사들였다. 농민들이 팔았던 농지를 도로 사들이면서 낸 금액은 광주 42억 2300만원·전남 2794억1400만원 등 2836억3700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재해 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부채 400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이를 해당 농가에 지역별 관행 임대료 수준으로 장기임대(7~10년)하고,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농가에 농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을 보장해준다.  
.....  
만원이다. 지난 5년여 동안 광주·전남 농민들은 404억3200만원을 더 들어 땅을 되찾은 셈이다. 공사가 거둬들인 환매차액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기금에 들어간다.  
농지를 팔아 급한 불은 껴지만, 땅값이 오르면서 불어난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농민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 올해 8월 말 기준 환매차액은 61억1400만원으로 전국 최대 금액을 기록했고, 매입

원금 대비 환매차액 비율도 21%에 달해 8개 도(道)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남 농지 환매차액은 지난 2017년 25억6200만원(환매차액 비율 8.4%)이었지만 2018년 53억 2300만원(차액 비율 12.4%), 2019년 62억9000만원(“ 16.8%), 2020년 78억1300만원(18.9%), 2021년 116억8400만원(19.8%)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농어촌공사는 전남에서 291억4400만원 상당 농지를 사들였는데, 농민들이 농지를 다시 사들이면서 352억5800만원을 내면서 61억1400만원의 환매차액(원금 대비 21.0%)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전국 환매차액은 327억 5600만원이었는데, 5분의 1가량(18.7%)이 전남에서 발생한 것이다.  
농민은 공사에 농지를 판 뒤 농지 매매가격의 1%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내며 영농을 지속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그 시점의 농지 감정평가액과 애초 농지 매입가격에 3% 이자를 합산한

금액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 농지를 다시 사들일 수 있다. 결국 임대료 1%에 환매 이자율 3%를 더해 사실상 4%나 되는 이자를 내야 하는 셈이다.  
신정훈 의원은 “재해 손해를 입거나 부채로 위기를 겪고 있는 농가들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결과적으로 농어촌공사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농업소득만으로 폭증한 환매 대금을 감당하기 무리다. 농지 환매 이자율을 시중 금리보다 낮추는 등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는 “환매 가격 결정은 환매 이자율(3%)을 적용한 금액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최근 농지가격 상승에 따른 환매 자금 마련 부담이 크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며 “환매 농가 부담완화를 위해 적정 환매 이자율 및 분납 기간 연장에 대한 연구용역을 올해 6월부터 추진 중이며, 결과에 따라 주무 부처와 협의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경북지역본부가 '온라인지역센터' 개장 1주년을 맞아 최근 광주 금남로 네이비스퀘어에 모여 지역 농특산물을 생방송 판매하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 전남·경북농협 '농특산물 라이브커머스' 공동 판매

온라인지역센터 개장 1주년  
무화과·사과 등 최대 39% 할인  
영호남 농협이 광주 금남로에 모여 농특산물 생방송 판매(라이브커머스)를 함께 진행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농협 경북지역본부는 생방송 판매를 진행하는 '온라인지역센터' 개장 1주년을 맞아 최근 광주시 동구 금남로 네이비스퀘어에서 '농특산물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했다고 16

일 밝혔다.  
이날 전남농협은 해남 바나나와 신안 무화과를 내놓았다.  
경북농협은 시나노골드, 감홍 등 사과 2품종과 사인머스켓을 선보였다. 이들 품목은 시중가보다 최대 39% 저렴한 가격에 판매됐다.  
구매 고객 20명에게는 진도산 검정쌀(2kg)과 경북산 사과(2.5kg)를 사은품으로 나눠주기도 했다.  
전남농협 온라인지역센터는 지난해 10월6일 개

장해 지금까지 19차례에 걸쳐 생방송 판매를 했다. 라이브커머스로 거둔 매출은 1억2500만원 상당으로, 전남 제철 농특산물을 전국 소비자에게 알리는 매체로 자리 잡고 있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이번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영호남 간 문화 교류를 넘어 먹거리 교류를 실천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전남의 농특산물을 전국에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농신보 광주센터, 보증실적 9000억원 달성

광주·곡성 등 6곳에 매년 1500억  
광주·전남 농수산인을 위한 보증기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광주권역센터가 최근 9000억원 보증실적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광주권역센터는 지난 2001년 출범한 이후 2014년 보증 잔액 5000억원을 달성하고 2019년 8000억원, 올해 9000억원을 기록했다.  
농신보 광주권역센터는 광주 전역과 곡성군,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화순군에 매년 약 1500억원의 신규 보증부 대출 지원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신보는 담보가 부족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해 영농활동에 필요한 필요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올해 전국적으로 농신보가 농수산인에 제공하는 신규 보증규모는 8조2000억원 상당이다.  
특히 청년 창업농과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 육성에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화상 광주권역센터장은 “이번 보증 잔액 9000억 원 달성은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농림수산업자의 보증지원을 위해 모든 직원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농협 전남본부 '이달의 새농민상' 4쌍 선정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복합 영농인 부부 4쌍을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에 선정했다.  
10월 '이달의 새농민상' 주인공은 나주 동강농협 박태수·이명순씨, 보성 회전농협 변재승·하수진씨, 서영광농협 박순환·주소영씨, 영암 월출산농협 박득용·현덕순씨 부부이다.  
나주시 동강면에서 대월농장을 운영하는 박태수씨 부부는 지난 1995년 귀농해 벼농사와 시설원예, 한우 사육을 병행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물 표준 규격화와 유통 구조 개선에 힘써왔다. 고령 농업인의 작업을 도와주고 각종 봉사활동에 앞장서며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에 선정됐다.  
35년 경력 박순환씨 부부는 영광군 염산면에서 벼농사와 염소 사육을 병행하고 있다. 농업용 드론과 광역살포기를 사용하며 농작업 기계화를 확대하고 있다.  
박득용씨 부부는 영암군 시종면에 지난 1991년 귀농해 닭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과 영농 기계화 등 선진 농업기술 도입에 힘써왔다.  
이달의 새농민상은 자립·과학·협동의 새농민 정신 실천을 통해 농가소득 증진과 영농 과학화 및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선도 농업인을 뽑는 시상 제도이다. 매달(1월, 8월, 12월 제외) 지역농협의 추천을 받아 농협중앙회가 선정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상가매매(상무지구) (유형적합)	신축 원룸 매매	경매교육 [ 기초반 ] [ 특수반 ]
<p>▶ 중심 상업지구</p> <p>▶ 유흥가능 (전용 100평)</p> <p>▶ 시세 - 10억</p> <p>▶ 급매 - 6억8천</p> <p>(보3천, 월수익 380만, 용 4억)</p> <p>(유흥가능, 사무실, 뼈, 룸, 홀덤바)</p>	<p>● 월수익 - 720만</p> <p>● 연수익 - 9000만</p> <p>● 매가 - 14억5천 (용자 7억)</p> <p>신축원룸 (공실없음)</p>	<p>* 경매실전 전문반 모집 (선착순10명) (경매기초교육부터 ~ 실전투자 수익창출까지)</p> <p>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p> <p>2) 중급반 (실전부터 ~)</p> <p>3) 특수반 (유치권, 법사, 지분)</p> <p>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p> <p>▶ 경매 물건 추천 ◀</p> <p>광주</p> <p>남구 지석동 (토지) ▶ 감정가 2억1,300 → 최저가 1억5천</p> <p>광산구 수완동(울솔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4억4천</p> <p>북구 삼각동 (여린이집) ▶ 감정가 7억1,100 → 최저가 3억9천</p> <p>광산구 쌍암동 (근린상가) ▶ 감정가 5억1,800 → 최저가 2억9천</p> <p>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4,500 → 최저가20억4천</p> <p>서구 농성동 (토지) ▶ 감정가 6억1천 → 최저가 4억2,800</p> <p>서구 풍암동 (토지)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p> <p>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11억6천</p>
010-6670-9800		010-2614-9801